

[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

# 방글라데시 의류 및 섬유 산업동향

방글라데시 의류 및 섬유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방글라데시의 최대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소규모의 수출이 성장한 결과이며 향후에도 해당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성장 요인과 관련 유망 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방글라데시 의류 및 섬유 산업동향

방글라데시 내 수출용 기성복(RMG, Ready-Made-Garment) 분야는 1970년 후반 작은 규모의 수출로 시작이 되었으며 30년 사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시작된 방글라데시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현재는 세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숙련된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제시간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제품이 경쟁력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3개의 주요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주요 아시아 국가 및 타국가로 확장이 용이한 특별한 지역적 위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캐나다, EU, 일본 등 선진국과 지속적인 교역 상태를 유지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노동력과 개발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급업체들 간의 클러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글라데시는 미국과 EU 등 국제 유통업체들의 압력 속에서 섬유 및 의류공장들의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향후에도 방글라데시 의류 및 섬유 산업을 국제적인 마찰 혹은 논란 없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방글라데시 의류 및 섬유 산업전망

지난 2015~2016년 방글라데시 RMG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32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8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대표 수출 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 글로벌 경쟁, 공장 안전 문제,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RMG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눈부신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들이 가치 사슬에서 벗어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제조국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 및 의류 산업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퍼, 버튼, 실이나 의류, 직물, 라벨 및 포장과 관련된 분야 역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섬유 생산 장비, 직물 화학 제품, 패션 및 디자인 컨설팅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Bangladesh – Garment and Textile Machinery and Equipment, 2017.10.16

<https://www.export.gov/article?id=Bangladesh-Textiles-and-Textile-Machinery-and-Equipment>